



‘깨어있기’가 깨어있게 한다(31부)

| 무연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2013~2014년에 걸쳐 오인회에 참여하였던 무연 님과의 대화를 위주로 오인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감지에서 감각, '나'라는 느낌에까지 이르러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속 현상'으로 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 글을 정리해준 영채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연 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생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 속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합니다. 그후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마음의 상이 내면에서 언어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고, 외부의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기'란 단어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편집자주).

(지난 호에 이어서)

월인 마음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질이라고 하면 뭔가 본질이 드러나서 현상화 하는 거니까 본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본질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이 본질이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드러났을 때만 우리는 파악이 되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때는 '드러나지 않은 본질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까봐 본질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또 미묘하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존재로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연 그런데 공기하고 소리라고 예를 들면...

월인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공기는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양성자와 전자가 있어요.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거나 양성자 주변에 전자구름이 이렇게 존재한다 말이죠. 그런데 애네들이 진짜 있다기보다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팽팽하게 긴장감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들 사이에 긴장감이 없어지는 순간, 즉 거기에는 양성자도 전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도 없죠. 이것들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런데 애들 사이에 긴장감이 없고 에너지가 풀어지면 어때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까? 본질이라면 물과 같이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모습을 띠지 않는 물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 이거예요. 에너지는 생겨나요 긴장감에 의해서. 그러다가 긴장감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물처럼 형태를 띠지 않은 에너지로 우주 공간에 가득 찬 것,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이유, 어떤 조건에서 긴장감이 생겨나면 이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물이나 공기에 비유하면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비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예요. 차라리 이게 더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체와 나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것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존재감, 이것도 여전히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이
본질이 드러난 모습이다

느껴지는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은 특별히 ‘있는 무엇’이 아니예요. 그런데 ‘없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런 수많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라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월인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겨나죠.

칼라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에너지는 있는데 관찰하면 물질화된다는 것 아닌가요?

월인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관찰하지 않더라도 빛은 비추고 있잖아요. 관찰하면 빛이 입자로 분별되거나 파동으로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자체도 어떤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이겁니다.

칼라 그런데 에너지라는 건 항상 있는 거 아니예요? 관찰하면 물질화 되는 거고.

월인 그 있다와 없다가 애매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하나요? 감각기관 없이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각적 현상의 근본이 되는 바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에테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에테르를 못 찾았어요. 양자진공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양자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에 반복하는데 그 짧은 순간이라는 게 너무도 짧아서 인간의 의식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이런 애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진공이라고 하죠. 진공은 진공인데 양자적 진공이라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데 양자로 가득찼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뭘니까? 일종의 힘을 쓸 수 있는 원천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양자 수프라고 그러죠. 에너지 덩어리가 생겨나기 전에 수프가 끓어서 방울을 만들면 이게 양자 덩어리고 방울이 터지면 다시 수프 속으로 들어가 양자가 사라지고 이런 거라고 상정을 하면 또 수프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비유라는 거예요. 물리세계는 그렇다 치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없을 때도, 뭘가 바탕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여기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일종의 마음현상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뭘가 자꾸 잡고 싶어해요. 뭘가를 자꾸 구체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다 그만둬’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이, ‘아, 내가 나를 만들었구나.’를 통찰하는 겁니다. ‘아, 나라는 현상이 나를 만들었네.’ 이런 것이죠. 의식적으로 살펴보면.

무연 의식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월인 의식적 세상은 그렇죠.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무연 의식할 때만 존재한다 이거네요.



월인 자기한테 그렇습니다. ‘경계’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분별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며 아주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세계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률적인 세계일 것 아닙니까?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구분해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케이. 무연 님,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보시겠습니까?

무연 뭘 해야할지, 과제를 주십시오.

월인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무연 네.

월인 잡힙니까? 잡으려고 하면 거의 다 잡히잖아요. 잡으려는 그 마음도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지금 마음을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살펴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느껴지죠. 조금 전까지 없었잖아요. 나타난 마음이잖아요. 그럼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의도가 느껴지는 마음, 그렇다는 것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라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있는 것, 변함없이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무연 네. 살펴보겠습니다.

월인 오늘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있는 것이 있었나요?

무연 알아차림인 것 같은데요.

월인 계속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무연 그것은 아니고요.

월인 그럼 아니죠.

무연 그럼 없습니다.

월인 그럼 없어요?

무연 그런 의도가 끊어지긴 하지만 계속 일관된 의도였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월인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 역시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연 네. 그럼 제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네요.

월인 그러니까요. 현상으로서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연님이 캐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상인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현상인 것이죠. 왜? 사라졌으니까. 의식적인 알아차림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아닌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